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_수혜자 신혜선 님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증자님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의 둘째딸이에요.

아! 정말 편지 시작부터 떠오르는 말은 감사하단 말뿐이에요. 사실 아빠가 처음 백혈병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갑작스럽고 항상 건강했던 아빠였기에 충격이 너무나도 컸어요!

또 병의 심각성과 생존의 불확실함에 많이 울기도 했죠. 그리고 가족 중에도 아빠와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기증자님을 만났고, 지금은 무사히 이식을 받아 회복중이에요.

정말 덕분에 행복했어요! 음, 이식 전까지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동종이식의 경우도 바로 앞두고 마음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힘써 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용기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골수기증을 결심하고 아빠와 유전자가 일치하고 끝까지 마음 바꾸지 않은 것까지 모두,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신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소중한 분께

·글_수혜자_최정선_님

기증자님께.

저는 기증자님이 새 생명을 나눠주신 환자의 아내입니다.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형제간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우리가족에게 희망을 준 기증자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어떤 말도 해도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증자님의 희생정신이 우리가족에게 가장, 노부모님께서는 아들,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까지 기둥이 되어줄 아با를 돌려주었습니다. 기증자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일을 해주신 기증자님 그리고 그 힘든
결정에 동의해주신 기증자님의 가족, 그 모든 분께 오직 감사하고 또 감사 할 뿐입니다.

기증자님이 흔쾌히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도 이식받을 때까지 혹시 마음이라도 변해 못 주
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기증자님의 희생정신을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몸은 잘 회복되었는지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병과의 전쟁 중이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기증자님께 보답하는 길은 건강을 되찾아서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고, 남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님.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증자님과 가족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 합니다.